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sup>2</sup>	G D P	5,768 억 달러 (2011년)
인구	28.17 백만명	1 인 당 GDP	20,504 달러 (2011년)
정치체제	군주제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달러 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6.1%에 달하는 2,654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3.9%에 해당하는 8조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으로,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 있으나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임.
- 2005년 8월 왕위를 계승한 Abdullah 국왕의 통치하에 안정적인 왕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다변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선진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유화정책의 시행으로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12년 중반의 유가 하락 및 4분기 원유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2011년 기준 2,654억 배럴) 보유국이자 세계 1위의 유류\* 및 원유 생산국(2011년 일일 생산량 각 11.6백만 배럴 및 9.8만 배럴)으로, 경제성장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유류 : 원유, 액화천연가스(LPG) 및 기타 액체연료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감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4.7%로 회복되었고, 2011년에는 고유가 지속 및 리비아 사태로 인한 원유공급 감소분 보충을 위한 대규모 증산에 힘입어 7.0%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음.
- 정유·화학 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비석유부문도 건설,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는 원유 생산량이 일일 평균 9.8백만 배럴로 전년도(9.5백만 배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리비아 사태 안정화에 따른 4분기 원유생산량 감소,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국제 석유수요 감소 및 그로 인한 6~7월경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낮은 5.7%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표 1 >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류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생산량	10.8	9.8	10.0	11.2	11.6
(원유)	(9.3)	(8.3)	(8.9)	(9.5)	(9.8)

자료: EIA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 2013년에는 원유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4%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소비의 견실한 증가와 정부의 대규모 산업투자 및 주택공급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 국제 식품가격 안정, 보조금 지급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 완화

- 2011년에는 정부의 지출 확대 및 고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국제 식품가격 안정,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초 생필품(식품, 전력 등)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년(5.4%) 대비 소폭 하락한 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반기의 주택임대료 상승(연평균 9%)이 물가상승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신규 부동산 공급과 주택 담보대출법 시행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6월부터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하락한 연평균 4.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는 주거단지 건설계획 등에 의한 주택공급 증가,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지속, 국제 상품가격 안정세와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 대폭 확대

- 사우디 정부는 2011년 주변국들의 정치적 불안이 자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민심 수습 차원에서 1,35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56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였음.
-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증산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의 증대로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1년 GDP 대비 12.0%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전년과 거의 동일한 GDP 대비 12.7%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도 재정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원유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은 4%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로 2017년까지 4%대의 경제성장 지속 기대

- 최근 IMF, EIU 등 주요 기관들은 정부지출 및 투자, 민간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사우디 경제가 2013~17년까지 계속 4%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지출 프로젝트의 추진, 평균 2~3%에 달하는 인구증가율로 인한 내수소비의 확대 등으로 경기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 2011년 초 발표된 1,3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따라 주거 단지 건설 계획과 더불어 교육기관, 병원 등의 시설에 적극적인 투자가 추진되고 있음.
- 특히 4개의 경제 신도시, 철도망의 확장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투자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우디 경제의 전망은 당분간 긍정적임.

< 표 2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sup>e</sup>	2013 <sup>f</sup>
경제성장률	0.1	4.7	7.0	5.7	4.1
재정수지 / GDP	-5.3	4.4	12.0	12.7	4.3
소비자물가상승률	5.1	5.4	5.0	4.5	4.4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

-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 부문이 GDP의 45%,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90%를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슬람 종교교육에의 치중으로 산업 분야의 숙련 노동력 부족

- 교과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도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학 전공으로 실제 각종 산업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의 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6.1%인 2,654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3.9%인 8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와 2,7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경제 중심국임.
- 원유는 대부분 동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인 Ghawar(700억 배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유전인 Safaniyah(190억 배럴) 및 Abqaiq, Berri 등임.
-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비석유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함.

다. 정책성과

□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다변화 추진

- 사우디 정부는 현재 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광업공사(MAADEN) 중심의 광업개발, 기타 제조업, 관광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슬람교의 성지순례인 하지(hajj) 기간에 성지 메카(Mecca)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하지보다 소규모의 순례인 움라(umrah)를 위해 메카를 방문하는 무슬림까지 포함하면 2012년의 성지순례 방문객은 1,2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관련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65억 달러로 사우디 GDP의 3%에 달했음.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호텔, 철도, 공항, 도로 등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 중임.

- 제조업 기반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코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 보고서에서 '기업하기 쉬운 국가' 부문 세계 22위에 올랐음.
- 2006년 12월 발표한 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에 따라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포장재, 소비재전자 부문을 5대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이 분야의 제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을 추가한 6대 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4년 19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됨. 다만 2011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감소로 FDI 유입액은 164억 달러 수준에 그쳤음.

####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 민영화의 적극 추진

- 사우디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임.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사우디전력공사(SEC)의 민영화, 사우디텔레콤(STC)의 증권시장 상장, 국영광업공사(MAADEN)의 지분 매각, 사우디아항공(Saudi Arabian Airlines)의 민영화 등임.

### 3. 대외거래

#### □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 고유가와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석유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1년의 상품수지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44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고유가 추세 및 원유 증산의 유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2,4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14.8%, 2011년 27.5% 및 2012년 23.0%를 기록하였음.
- 다만 2013년에는 유가 하락 예상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세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 투자수익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된 13.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과 2005년부터 본격화된 FDI 유치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말 6,48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으로 외채 규모가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12년 19.0%로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할 때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D.S.R.도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sup>e</sup>	2013 <sup>f</sup>
경 상 수 지	20,953	66,751	158,492	153,752	100,682
경 상 수 지 / G D P	5.56	14.81	27.48	22.96	13.32
상 품 수 지	105,229	153,717	244,712	248,386	202,354
수 출	192,307	251,149	364,735	385,212	349,442
수 입	87,078	97,432	120,023	136,826	147,088
외 환 보 유 액	396,748	432,094	525,521	648,710	724,843
총 외 채 잔 액	72,398	85,009	107,066	127,368	142,778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22	18.86	18.56	19.02	18.89
D S R	2.67	2.38	2.07	2.35	2.80

자료: IMF,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Abdullah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정치적 안정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국법으로 하는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임.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는 한편 종교 수장의 역할도 겸하며,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와 각료 회의(Council of Minister)를 주재하여 국정을 총괄함.



- 1932년 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 초대 국왕의 즉위 이후 Al Saud 가문이 계속 통치하고 있음. 사우디 왕실은 형제 상속을 채택하여, 국왕은 통상 자신의 바로 아래 남동생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고, 이는 종교 지도자회의(Ulama)와 왕실위원회 그리고 초대 국왕의 직계 남자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충성위원회(Allegiance Committee)의 승인을 거쳐 확정됨.
- 현 Abdullah 국왕은 Abdel-Aziz 초대 국왕의 아들이자 선왕인 Fahd 국왕의 이복동생으로 2005년 8월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총리를 겸임하고 있음. 각 부처의 장관, 군부 및 경찰 총수를 포함한 요직들은 사우디 왕실의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음.
- Abdullah 국왕은 즉위 후 왕실 내 계파간 화합 도모, 점진적인 정치·경제 개혁의 추진, 대국민 화합, 아랍·이슬람 국가는 물론 서방·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테러리즘 척결 등 적극적인 국정 운영 및 대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5년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주민 직접선거를 통한 지방행정자문회의 선출직 의원(592명) 선출, 여성의 공직 기용, 2011년 9월 여성 참정권의 승인, 2013년 1월 입법부 역할의 국왕 자문기구인 Majlis as-Shura에 30명의 여성 위원 임명(전체 위원 150명 중 20%) 등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의회나 정당은 없으며, 따라서 정치활동도 없음. 대신 국왕이 임명하는 1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음. 장관직은 4년마다 재·연임하는 형식이나, 특별히 부정부패 또는 실정이 없는 이상 평생직과 다름없을 정도로 내각 교체가 거의 없음.
- 지방행정조직은 13개 주로 구성되며, 각 주의 지사는 왕실에서 임명한 왕자가 맡고 있음. 각 주는 내무장관이 임명하는 정원 30명의 주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행정자문회의(Municipality Council, 지방의회에 해당)는 전체 의석(1,184석)의 1/2인 592석을 2005년 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함. 이는 Abdullah 국왕이 추진 중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주민 직접선거임.

□ Muqrin 왕자의 제2부총리 임명으로 후계구도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

- Abdullah 국왕(1924년생)은 현재 88세의 고령이며, 2012년 6월 새로이 왕세제로 지명된 Salman 왕자도 현재 77세의 고령임. Salman 왕세제 이후의 왕위계승 서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국왕 및 왕세제의 유고시 국정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Abdullah 국왕은 공정한 왕위계승을 위하여 국왕 및 왕세제의 유고시 충성위원회(Allegiance Commission)에서 국왕을 선출하도록 하는 왕위 계승법안을 2006년 10월 제정하였음.
- Abdullah 국왕은 2013년 2월 이복동생인 Muqrin 왕자를 제2부총리로 임명하였음. 제2부총리는 통상 왕위계승 서열에서 왕세제 다음 순서로 간주되므로, Muqrin 왕자가 차기 왕세제로 지명될 것이 유력함.
- 현재 67세인 Muqrin 왕자의 제2부총리 취임은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국왕이 왕위계승의 사안에서 과감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국 안정을 지향할 것임을 암시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 시아파에 대한 차별로 인한 불만 등이 사회 불안요소

- 2012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12% 수준이나 실제로는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에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Saudization)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5%를 상회하는 데다 민간 기업들이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숙련도는 더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전 인구의 약 10%로 추산되는 시아파 신도들(Shias)은 사우디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 왕정의 전복을 노리는 알-카에다 등과의 연계 의혹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공직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의 차별을 겪고 있음.

- 정부는 시아파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는데, 특히 1979년 이란 회교혁명 후에 시아파 밀집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소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근래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부패 만연 등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양호한 재정여건에 기반한 경제적 유화정책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희박**
- 중동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우디에서도 2012년 동부의 시아파 거주지 및 홍수 피해 지역인 제다(Jeaddah)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반정부 시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정교 일치의 국왕 중심 체제하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곧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왕 및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아울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튀니지, 이집트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경제적 유화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함을 감안할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건설, 공무원 임금 인상,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 1,350억 달러(2010년 GDP의 30%)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3. 국제 관계

**□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지원 확보를 위해 긴밀한 대미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깊은 반미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정책과 국민감정간에 괴리가 있음.

□ **핵개발 의혹에 따른 중동 불안 우려 등으로 이란과의 갈등 심화**

- 1979년 이란 회교혁명 이후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된 이래 이란의 개혁파 Mohammed Khatami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관계가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강경 보수파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의 취임 후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 중동에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2011년 3월 바레인에서 집권층인 소수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반발로 발생한 시위 사태의 진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측의 요청에 따라 1,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자, 이란 정부가 바레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었음.

□ **GCC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지도적인 회원국으로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GCC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세계 원유 매장량의 30%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하여 역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역외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9년 12월 GCC 정상회의는 연합군의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제 출범을 위한 통화협정을 발효시켰으나, 단일통화제의 실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 UAE는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향후 걸프중앙은행의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통화동맹에서 탈퇴하였으며, 오만은 단일통화 체제의 가입을 위한 자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음. 또한 최근 유로존(Euro Zone) 재정위기로 인해 단일통화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년 10월 16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력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항공협정(1984),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1990), 투자협력협정(2002),  
조세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7)
  
-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임. 우리나라의 2012년 원유 총수입량 9.5억 배럴 중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가 3.0억 배럴로 32.0%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12년 488억 달러임. 수출은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91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97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제1위 국가**
  - 2013년 2월 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액은 단일국가로는 최고 금액인 1,17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5,520억 달러의 21.4%를 차지함.
  - 2010년부터 국영석유회사 ARAMCO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개년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개발 사업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3월 한화건설이 MAADEN사가 발주한 2.7억 달러 규모의 광물 플랜트(금 원석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수주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신규법인 수 198건, 총투자금액 4.8억 달러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업종별로는 건설업(2.4억 달러)과 제조업(2.3억 달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표 5 >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4,557	6,964	9,112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석유류 등
수 입	26,820	36,973	39,707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의 강세와 원유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2011년 7.0% 및 2012년 5.7%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2013년에는 원유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4%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나, 내수소비의 견실한 증가와 정부의 대규모 산업투자 및 주택공급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해나가는 한편,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높은 실업률과 소수 시아파의 정치사회적 소외에 따른 불만, 왕가에의 부와 권력 편중에 대한 불만 등이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Abdullah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양호한 경제여건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적 유화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 소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따라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외채의 5배에 달하고 D.S.R도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하여 향후 외채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